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몇 번의 고비...극복...합격



서 태 규

- 1984년 11월 생
- 부산 양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4년 재학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면서

처음 사법시험에 뜻을 품고서 무엇보다 해야 할까..하고 고민하다가 고시계 합격기 3년치를 몽땅 모아서 형광펜까지 쳐 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알고 지내던 선배도 많지 않을 때이며, 가까운 선배들 중에 합격한 분이 안 계셨던지라 자연스레 합격수기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수기를 보면 어떤 수기는 공부 방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수기는 공부하다가 편안히 머리를 식히게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수기는 특별한 공부 방법을 담고 있지는 못한 만큼 공부하다가 지치고 답답하신 분들이나, 아직 공부하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계시면 편안히 읽으시면 될 듯 하네요.

### II. 시험을 결심하기까지

#### 1. 지극히 평범했던 유년기

저의 유년기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초,중,고를 거치면서 반장은 커녕 부반장조차 해본 적 없었고, 제대로 된 상한번 받지 못했었지요. 그렇다고 놀기를 잘 했느냐하면 워낙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노는 것에도 별로 소질이 없었고, 또 그림이나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에 능했던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2. 뜻밖의 고등학교 유도부 주장  
중학교 졸업 후 여전히 존재감 없는

고등학교 생활 중 우연찮게 학교 내에 있는 유도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데, 훗날 알게 된 바로는 학교를 만들 때 초대 교장선생님께서 불량학생들을 맘 놓고(?) 집어던져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라 그러더군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1학년 때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맞기도 엄청 맞고 운동도 무지하게 힘들었지만, 어떤 무리에 속해있다는 소속감 때문이었는지 정말 즐겁게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하여 2학년 때부터는 학업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학년이 되자 선배들이 저를 주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니가 무슨 유도선수 할 거냐고 노발대발 하시고, 저 역시도 어떤 무리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특히나 거칠고 거친 남고의 운동부 주장이 된다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선배들에게 말해도 이미 정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말 그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주장 생활을 시작했죠.

정신없이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배들, 선생님들께도 많이 불려 다니고, 대학생활 전체 기간 동안 마신 술보다 더 많은 술을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마시게 되고, 집에서는 거의 반 포기하시고, 결정적으로 운동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하느라 2학년 기말고사 응시 자체를 못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생활들이 저로 하여금 재수를 하게 만들었지만, 이 때 1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 남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제 인생을 능동적이며 열정적으로 살게 만든 귀중한 한해가 되었거든요.

### 3. 재수 생활과 사법시험 결심

다이나믹 했던 고등학교 생활의 당연한 결과로 입시 때 부산에 소재한 대학들로부터 그 학과를 지원한 응시인원과 비슷한 숫자의 대기번호를 받으면서 곧장 재수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했을 때의 열정을 그대로 쏟아 성적으로 눈에 띄게 오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저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시험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III. 대학 입학과 군 입대

### 1. 짧았던 대학 새내기생활

사법시험에 도전해 보겠다는 포부를 품고 대학을 입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적인 생활보다는 여행, 운동 등의 능동적인 생활을 좋아하게 된 제 성격과 집안 형편 등을 감안하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나서 곧바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여 빨리 합격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학생들의 경

우 대부분 시험 합격 후에 법무관으로 군대를 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매우 힘들게 결정하였던 것 같네요.

## 2. 의경 입대

즐거웠던 대학 새내기 생활에 한참 취해갈 무렵, 의경에 지원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낭만을 충분히 느껴보지 못하고 입대하여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일단 입대를 한 순간부터는 시험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회에 있으면 시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대해 지지만, 의경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에 아직 이렇게 데모가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울산, 포항과 같은 곳에 가면 쇠파이프와 각목이 등장하는 시위도 참 많고, 자연스레 닭장차라고 부르는 기대마를 타고 지방으로 출동을 다니는 일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틈틈이 휴가를 이용하여 공부하고, 닭장차에 꾸르려서 책을 본 덕분에 2년의 군 생활 동안 지원립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1회독 하며, 이원영 강사의 민법강의 테이프를 한번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공부했던 내용들만 보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부여건 속에서도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마쳤다는 사실은 훗날 공부하다 힘들 때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IV. 1차 시험공부의 시작

### 1. 군 전역과 본격적인 공부 시작

군 전역과 동시에 학교 복학을 하고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의 해방감 때문에 생활이 나태해 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녁 9시에 취침하여 새벽 3시~4시쯤 기상하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 좋아하는 저를 밤에 집에 붙잡아 두기 위한 공여지책이었죠.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이와 같은 전략이 꽤 주효하여 주변이 고요한 새벽에 공부했던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고, 밤에는 잠을 자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과 선배들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반년정도 이런 생활을 한 후에는 수험 생활이 몸에 약간 베여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녀서 법학 35학점을 채운 후에 학교를 휴학하고 신입동으로 넘어가서 모강을 하면서 야심차게 1차 시험을 준비했지만, 터무니 없는 점수로 떨어졌죠.

### 2. 재정비 후 1년의 준비

신립동에서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해서 1차 시험을 치르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정신도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1학기에는 재정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도 좀 만나고, 회복을 위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검도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휴식을 취하다보니 확실히 1학기가 지났을 때는 여유가 많이 생기더군요. 특히

검도장을 다니면서는 고등학교 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안정을 많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몸과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로 시험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원 모강은 듣지 않고 스터디에 들어가서 문제집을 시간제서 같이 풀고, 풀이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험기간 중 가장 안정적이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V. 1차합격과 새로운 시작

### 1. 1차시험의 합격과 초시

안정적으로 공부했던 덕분인지 생각 이상으로 좋은 등수의 성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2차 시험에 대해서도 약간 자신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초시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휴식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즐기다 보니 어느새 초시가 다가왔는데, 결과는 7과목 모두 과락이었습니다. 그것도 면과락 비슷하게 간 것도 없더군요. 믿었던 기본 3법마저 말도 안되는 점수로 과락이 나오더군요.

결과적으로는 초시 때 성적은 재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험 기간 동안은 은근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써야 과락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모르는 데다가 특히 기본 3법마저 모두 과락이 나왔다는 사실은 저를 꽤 괴롭혔거든요.

### 2. 달콤했던 봄바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저 갔고, 1차 시험도 꽤 고득점으로 합격했던 지라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 입대 전에 아주 짧게 연애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핑계로 연애를 계속 멀리했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술, 담배, 여자는 멀리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던 지라 수험기간에는 연애를 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말이죠. 근데 제 의지력이 약해서인지 무조건 멀리한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되거나 잡념이 사라진대거나 그러진 않더군요. 그러던 중에 1차 시험이 끝날 무렵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고, 시험을 친 후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시를 준비하던 사람이라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 꼭꼭 담아뒀던 마음을 열었을 때의 기분은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왔지만..

## VI. 아찔했던 재시 전 1달

### 1. 본격적인 2차시험의 시작

학교 고시반인 사마헌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던 지라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예비순환 때 공부를 거의 안했던지라 1순환부터 엄청 힘들더군요. 특히 예비순환을 충실히 보낸 사람들과의 뭔가 좁혀지지 않는 격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제 페이스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공부시간과 공부량을 확보해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연애와 공부를 병행하다보니 이것이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2순환이 지나고 3순환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시험 발표가 났고, 제가 사귀던 사람은 합격을 했습니다.

## 2. 재시 2달 전의 결심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뜻대로 나오지 않았던 데다가, 사귀던 사람이 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이런저런 마찰이 많아 졌습니다. 그렇게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과 상담 한 끝에 사귀던 사람에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 딱 2달 정도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 3. 그로부터 1달 후

제 공부 때문에 연락을 잠시 하지 말자고 했던지라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그렇게 1달이 지날 무렵, 즉 재시가 약 1달 정도 남았을 무렵 연수원 생활을 하던 선배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알아본 결과, 제 여자 친구이던 사람이 연수원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다더군요. 그것도 그 남자의 여자 친구 역시 재시생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1년

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몸에 열이 올라서 밥조차 못 먹겠는데 시험은 1달 밖에 안 남았고,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더군요. 그 사람도 재시 기간을 겪어본 사람이고, 그 재시기간동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며 그 사람이 합격한 모습을 본지라 그 배신감은 아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미칠 것 같고, 공부고 뭐고 다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오기가 더 크게 발동하더군요. 고승덕 변호사가 예전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으로 공부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벼랑 끝에 매달려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알겠더군요. 그 때의 폭발적인 집중력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거든요.

## VII. 재시, 그리고 합격

### 1. 짧지만 길었던 4일 동안의 시험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씩 버텨내니 시험이 다가왔고, 시험 치는 4일 동안도 계속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안 될 경우에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한없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그런 긴장감이 저를 더 비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무사히 시험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2. 만감이 교차했던 합격

배신과 헤어짐에 대한 감상을 모두 시험 후로 미뤄뒀던 지라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그 감정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더군요. 시험 끝난 다음 주에 가족들과 동해로 여행을 갔는데 다녀오는 내내 차안에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던 생각이 나네요. 차마 부모님께 말씀은 못 드리고.. 참 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잘 이겨낸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마지막의 집중력 때문에 합격에 대해 확신을 어느 정도 내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10월 말, 다행히 합격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인 말들이 합격 발표가 나면 그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그러죠. 저는 처음에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 밖에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전화가 쏟아지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 VIII. 마치면서

저는 공부하면서, 특히 군대에서 공부할 때나 새벽 3,4시에 공부하면서 힘들 때면 꼭 합격해서 합격기를 쓰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시계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분량을 채울지 막막해 지더군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한참을 고

민하다가 제 유년시절과 군대생활, 아픈 연애사까지 털어놓게 된 이유는, 첫째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빼놓고는 절대 제 수험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 그대로 합격수기인데 제 기억을 편집해서 좋은 일들만 쓰고 싶진 않았습시다. 둘째로는 이 글을 읽고서 힘을 내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계셨으면 해서입니다. 저처럼 유년시절 공부를 잘 하지 않았던 분들, 군대에서 공부하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시험 직전에 가슴 아픈 일을 겪는 분들까지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합격기는 합격한 사람이 가진 기억의 편집본이라는 말이 있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이 말에서 벗어나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모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신다면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수험기간 큰 힘이 되어 준 진이, 세실이, 승훈이, 성훈이, 승창이, 효주, 성애, 정욱이, 심미 등의 BI조 동기들과 선배들, 항상 앞길을 밝혀 주시는 진이누나, 지훈형 등의 선배들, 학교 고시반인 사마헌, 집 생각날 때마다 많이 놀러 갔던 작은 이모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끝으로 언제나 무한한 힘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과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